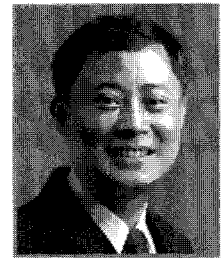


【특집: 결산 2009,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결산】

한육우 사료산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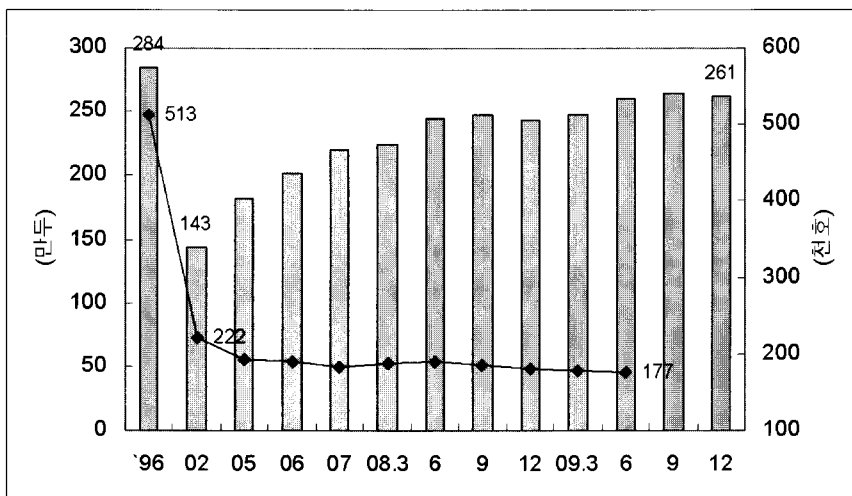
박 응 렬 박사
(주)삼양사 축우PM 부장

2009년 한육우 사료산업은 한마디로 비육우 양축가와 사료업계 모두 호황이었던 한 해였다. “국내산 쇠고기가격의 상승”과 “사료가격의 인하”로 한육우 양축가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료업계 또한 “비육우 사육두수 증가”와 “국제 곡물가격 하락”으로 ‘08년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올해의 국내외의 사료산업을 “비육우산업”, “배합

사료”, “사료업계”의 3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1. 비육우산업

284만두의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를 보였던 ‘96년을 기점으로 14년간의 한육우 사육두수 변화를 보면, ‘0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143만두의 최저두수를 보였으나 그 이후



【그림 1】 한육우 사육두수 및 가구수 변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09년 12월에는 261만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비육우의 사육호수는 '96년 51만3천호에서 '09년 17만7천호로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1).

【 표 1 】 가구당 사육두수 변화

연도	가구수	사육두수	가구당 두수
1996	51,300	284만두	5.5두
2002	22,200	143만두	6.4두
2009	17,700	265만두	15.0두

결과적으로 가구당 사육두수는 '96년 5.5두에서 '09년에는 15두로 2.7배나 증가하였다(표1). “한국축산연감”을 참조하면, 비육우 사육두수가 '09년과 비슷했던 '98년에는 1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 숫자는 1,000여가구에 불과했으나 '09년에는 3,600호로 3.6배나 증가하였다. 즉 비육우의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양축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이러한 “사육두수증가” 및 “사육규모의 대형화”를 주도한 주요인은 비육우의 높은 산지가격이다. '09년 11월 기준으로 한우(600kg)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수소 564만원(전년대비 49.6%, 평년대비 20.5% 상승), 암소 569만원(22.8%, 13.9% 상승), 수송아지 222만원(44.9%, 3.8% 상승), 암송아지 204만원(전년대비 45.7% 상승, 평년대비 23.0% 하락)으로 전년대비 평균 40% 증가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 12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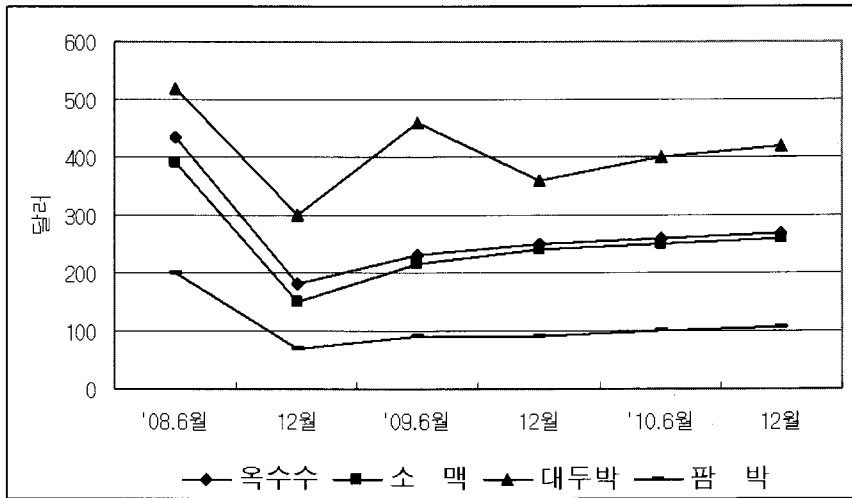
이러한 산지가격의 상승원인은 올해 “전식당의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로 소비자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증가에 힘입어 “국내산 쇠고기 전문 정육점식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고회율의 영향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이 한우의 소비를 증가 시키는데 한몫을 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 12월호). 이러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의 증가('09년 53%추정)와 함께 1인당 쇠고기 소비량 또한 '07년 7.5kg에서 '09년에는 9kg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육우 소비시장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2. 배합사료

올해 배합사료 환경에서의 주목할 부분은 “곡물가격 하락”, “배합사료 생산증가” 및 “비육우TMR 및 자급사료의 사용증가”등을 들 수 있겠다

우선 곡물가격 부분에서 대표 곡물인 옥수수를 예로 들면 '08년 6월 톤당 433달러로 사상 최고의 가격을 보였던 것이, 올 12월에는 270달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2).

이러한 옥수수의 하락원인은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첫번째가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이다. 옥수수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예를 들면 옥수수생산량이 '08년 대비 '09년에 7% 증가하였다(미국농무성 자료; '08년 3억7백만톤, 09년 3억2천8백만톤). 두



【그림 2】 2009년 곡물가격 추이

번째가 해상운임의 하락이다. '08년 5월 톤당 145달러까지 치솟던 해상운임이 서서히 감소하여 '09년 10월 이후에는 66달러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US Gulf → 한국 기준). 또한 재작년부터 곡물로 몰렸던 국제 투기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곡물가격을 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작년의 급상승하였던 사료가격이 올해 총 5회에 걸쳐 가격인하가 시행되었으며, 각 사료회사별로 20~30% 하락하여 비육우 양축가들에게는 약 12~18%의 생산비 감소효과를 보였다.

비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비육우용 배합사료 생산량 또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 12월호, 7~10월 생산기준).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육우TMR사료 및 총체보리 등의 자급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본 내용에 관한 정확한 Data는 입수하지 못했

지만, 필자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육우TMR과 총체보리 등의 자급사료는 적용이 잘못 될 경우, 오히려 “생산비의 증가”와 “등급출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경제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후에 각 사육단계에 맞는 정확한 영양설계와 급여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료업계

올해 비육우 사료업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양축가들의 단체화에 따른 OEM사료의 증가이다. 이러한 OEM사료는 전국/지역 한우협회와 지역 한우조합을 중

심으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본 사료의 주된 목적은 “사료 및 사양관리의 통일로 인한 브랜드 축산물 생산”과 “단체구매(Buying Power)로 인한 사료비 절감”에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저가 OEM사료가 사료업체간의 MS확보경쟁을 부추겨 추가적인 사료가격의 인하등의 업체간의 치열한 판매경쟁 양상을 보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되지만, 사료가격에만 치중한 판매경쟁은 사료의 품질을 하락으로 이어져 등급출현율의 저하가 우려된다.

다음으로 올해 사료업계에서의 특이한 부분은 사료회사들간의 전략적 제휴(MOU) 체결이다. 올해 국내 굴지의 사료회사인 C와 D사가 MOU를 체결하였다. 본 현상은 비단 비육우사료에만 국한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료회사들간의 MOU체결로 인한 사료공장들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운반비 절감 및 효율적인 공장 활용효과가 기대된

다. 축산물의 안정성 요구가 증가되는 현재, 향후에는 이러한 사료회사들간의 MOU와 함께 축종별 전문공장들의 출현이 더욱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올해는 “국내산 축산물의 선호증가”, “곡물가격 안정”, “사육두수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한육우 사료환경이 유지되었다. 내년 또한 이 3가지의 요인들로 인해 한육우시장이 변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우 고급육 최상품의 판매단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두당 1,000만원 이상 소의 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 또한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축가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비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축가들은 고급육 생산기술 습득과 함께 사료업계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